

남편이 1시간 일찍 퇴근하면 달라지는 하루



 **세계일보**

양다훈 기자



오전 햇살이 비추는 아파트 단지. 검은 실내복 차림의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걷는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따라 나 있는 길을 걸으며, 아이가 잠들어 있기를 바라거나, 혹은 막 갓 아이를 달래며 한 바퀴를 도는 중일 것이다. 어떤 하루의 시작, 혹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지난해 아들을 낳았다. 처음 겪는 육아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끝없이 넓혔다. 어떤 날은 무력했고, 어떤 날은 벅찼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친 뒤, 새벽 수유 후 다시 출근 준비를 하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집값은 이렇게 오르는데, 이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고 나서야, 같은 동네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게 됐다. 부동산을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배경으로 바라보고 싶어졌다.

기자는 숫자에 익숙하다. 나 역시 그랬다. 전세가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입주 예정 물량, 교육특구 지정 여부 같은 것들을 좇으며 기사를 써왔다. 독

자들이 원하는 건 정보라고 믿었고, 숫자에 강한 기자가 실력 있는 기자라고 여겼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달라졌다. ‘이 집값 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부동산 기사에도 이런 식으로 ‘육아’ 키워드를 접목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육아동네’를 주제로 삼아보자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마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숫자만 보던 기사에서 사람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다.

바람이 불던 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였다. 단지 내 놀이터 옆에서 한 엄마를 만났다. 둘째를 임신 중인



1	2
3	
4	
5	

1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 미끄럼틀 앞에서 아빠가 아이 손을 꼭 잡아주고 있다. 아이의 첫 계단. 아빠는 뒤에서 조심스레 받쳐 주며 올라가는 걸 지켜본다. 그 아래, 또 다른 아이가 숨어 놀고 있다. 모두에게 저마다의 오후가 흐른다.

2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하나쯤은 꼭 있는 체온계.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한 날, 아이가 축 처져 있으면 열부터 재보게 된다. 35.3도. 큰 문제는 아니겠지 싶다가도, 혹시 몰라 다시 한 번. 그렇게 부모의 하루는 안도와 걱정 사이를 오간다. 옆으로 보이는 기저귀와 로션, 그리고 조금 어지러운 수납함이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의 농도를 말해 준다.

3 따뜻한 봄날. 조용한 단지 안 놀이터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부모가 퇴근하거나 주말이 오면 아이가 함께 웃으며 뛰놀게 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풍경.

4 편의점 앞 인도, 유모차를 밀고 있는 건 아이의 할머니였다. 지금 이 시대의 육아는 조부모의 손길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다. 낮 시간, 아이와 함께 동네를 걷는 그 한 바퀴가 조용한 육아의 풍경이 된다.

5 비 내리는 오후. 우산을 쓴 두 초등학생이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꼭 붙어 있진 않지만, 젖은 골목길 위를 나란히 걷는 그 모습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놓인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가길은 조금 더 안전해진다.

맛벌이 엄마에게 익숙한 질문들을 던졌다. 어린이집 대기, 초등학교 거리, 단지 내 CCTV 유무. 대답은 무난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왔다.

“대단한 지원보다 남편 1시간이라도 먼저 퇴근시켜주는 게 최고의 복지 같아요”

그 앞에서 나는 ‘아’ 하고 짧은 탄성을 내뿜었다. 메로도 잊은 채,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숫자에선 보이지 않던 풍경이, 그 짧은 말 한 마디에 담겨 있었다.

다만 그 엄마의 말은 결국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편집 과정에서 빠졌고, 기사 제목은 다시 숫자를 앞세운 문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내겐 그 말이 기사의 본질이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이시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부모가 아기 봐주러 오기 편해서였다. 단지 내 CCTV가 많아서 안심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늦게 와서 혼자 아기 데리고 다닐 일이 많아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기사의 시선을 조금씩 바꿔갔다. 여전히 숫자를 보지만, 숫자 뒤에 사람을 먼저 본다. 예산이 늘었다는 말 대신, 그 예산이 한 가정의 저녁 시간을 얼마나 바꿔주는지 묻는다.

‘육아동네 리포트’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됐다. 출산 후 집을 옮기는 가족들,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부모들, 층간소음 때문에 포기한 신축 아파트 이야기까지. 숫자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왔다.

육아와 주거 문제를 연결한 이 시리즈는 ‘아이는 낳았지만 어디서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는 3040 부모들의 공감과 반응을 이끌어냈다. 기사 댓글과 SNS를 통해 “이사 고민 중에 도움이 됐다”, “통계보다 사례가 더 와닿는다”는 피드백이 이어졌다.

기사를 올리기 직전, 마지막 문장을 붙잡고 다시 읽는다.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혹은 저녁 준비하며 뉴스를 흘려듣는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을까.

퇴근하자마자 아이와 놀이터 한 바퀴를 도는 아빠, 씻기고 재운 뒤 내일 어린이집 준비물 목록을 확인하는 엄마, 그런 일상에 닿을 수 있는 말을 쓰고 싶어진다.

유모차를 밀며 단지를 도는 그 걸음에도 부모의 선택과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오늘도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삶을 먼저 알고 싶다. 

세계일보 양다훈 기자